

◇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향해 불심투혼을 불사르고 있는 '한마음 불자회' 불자 선수들. 이번 올림픽에서 10위권만을 목표로하고 있는 한국선수단의 확고한 메달리스트들이다. (중앙에는 13년간 선수들을 지도해온 영산 스님)



◇ 작은 거인 전병관 선수는 수행자의 자세로 올림픽에 임하겠다는 각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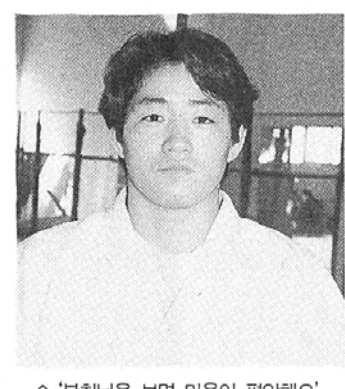
# 애틀랜타 향한 구슬 땀 金캐는 불자선수 "화이팅"

7개월 남짓한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을 향한 선수들의 집념은 한겨울 동장군도 물러나게 할 만큼 태풍선수촌을 흥건히 적시고 있다.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의 무대인 애틀랜타 올림픽에서 금을 깨기 위해 땀흘리는 불자 선수들이 유난히 돋보인다. 96년 애틀랜타 올림픽에 참가하는 불자선수는 대략 3백여 명. 이들을 태풍선수촌 법당을 찾아 일심으로 기도정진하는 한마음불자회(회장 전용균) 선수는 90여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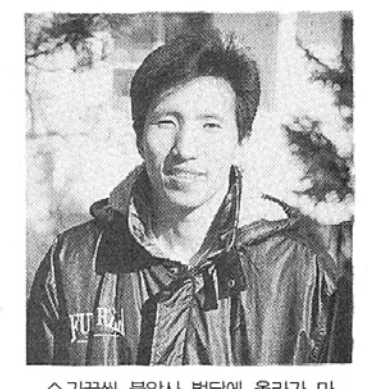
매주 목요일 정기법회를 갖고 불심투혼을 일구고 있는 불자선수들은 강한 신심에서 우러나오는 통쾌한 플레이를 펼치겠다는 각오로 보란듯이 한 마음으로 합장한다.



◇ 항상 '관세음보살'을 염한다는 전기영 선수.



◇ '부처님을 보면 마음이 편안해요'라고 말하는 정성숙 선수.



◇ 가끔씩 불암사 법당에 올라가 마음을 정리한다는 이은철 선수.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서 2연패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 삭발까지 한 황영조 선수. '올림픽의 꽃 마라톤에는 세계 최고의 마라톤러인 영웅 황영조선수와 이진일 선수가 있다. 황영조 선수는 '몬주익의 영웅' 달계 대회 2연패의 월계관을 쓰기 위해 삭발투혼을 불사르고 있다. 초인에 가까운 황선수는 '어머니(이만자)보살·영은사 신도)가 밤새워 불공드리는 모습을 떠올리며 '효자불자. 13년간 선수촌불자들을 지도해온 영산스님(안산 고려선원 원장)은 '항선수가 세계 1인자로 우뚝선 것은 불굴의 투지와 끊임없는 훈련, 그리고 불심으로 무장된 정신력으로 본다'고 한다.

은진 손민정 윤희영 한희정 양승숙 강경옥 선수가 있다. 장영술 감독은 '불교가 정신수양의 특성이 강해 정신집중이 요구되는 양궁과 통한다'고. 수많은 국내 대회에서 금메달을 획득한 이은경은 '향내음이 매로웠다'며 '참선을 하다보니 마음을 다스릴 수 있어서 법당을 자주 찾는다'는 한마음불자회 부회장인 대표선수 발전에서 세계기록 타이틀을 획득한 김경옥 선수는 차분함과 침착함을 갖게해주는 불교가 좋으며 '참선을 통해 호흡을 조절한다'고 한다. 레슬링에도 방대두 김영남 감독을 비롯하여 심권호 박준성 김종신 최진호 김은유 선수가 있다. 심권호 선수는 95년 히로시마 올림픽에서 국민들이 '목 놓아 기다리던 첫 금메달로 포문을 연 선수이며, 바로셀로나 금메달리스트 박장순 선수도 든든한 불자.

역도에는 전병관 정대진 이강석 황희동 진명성 강희숙 이운경 선수가 있다. 작은거인 전병관 선수는 92년 바르셀로나에서 비인기종목인 역도로 금메달을 획득. 전 선수는 '수행자 자세로 올림픽 2관왕을 이루겠다'며 '몇백만톤의 바벨은 쥐었음직한 두주먹을 불끈잡는다. 사격에도 이은철 한현진 여갑순 신용자 손혜경 오미란이 상회 선수가 있다. 사격 2관왕 이은철 선수 어머니의 아들사랑은 '아들과의 대화'라는 글을 통해 동아일보 추천작가가 된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이 선수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부처님께 팔았다며 정진의 귀의처로 인도했다'며 '가끔씩 불암사 법당에 앉아있다'고. 이 선수는 전병관 선수와 의형제 관계이기도 하다. 오미란 선수는 히로시마에서 매일 법당을 찾아 1백배 기도정진, 일본스님들도 허를 내두른 알짜배기 불자. 또 당돌하기까지 한 한현진 선수는 한마음불자회 총무로 모든 잡일을 도맡아 처리하는 남다른 실행력을 보여주고 있다. '히킴은 법회에 자주 찾아와 신경을 많이 써주는 유영채 감독을 비롯 전용균 박신희 김영기 유영근 정종균 전종하 권창속 최은경 조은정 노영미 선수

가 있다. '한마음불자회 회장 전용균 선수는 빼어난 운동시간 이외에도 불자회를 체계적으로 조직화한 신심깊은 선수. 수석사 주지 법장스님의 유발상이라는 전 선수는 중앙승가대 스님들을 모셔와 법문을 듣고 선수들과 사찰순례를 정기적으로 갖고 있다. '운동이 힘들 때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참선을 많이 한다'는 그는 법명이 명진. '이밖에도 농구에는 히로시마 금메달 획득후 '부처님께 감사하다'고 밝힌 불심 투혼의 전주현 감독을 비롯 전주원 선수, 체조에는 여흥철 조성호 이장형 이주형 정진수 선수가 있으며 육상에는 김기훈 김태희, 스피드 스케이팅에는 김이경 채지훈, 볼링에 김



◇ 수많은 국내외 대회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양궁의 히로인 이은경 선수.

## 참선 · 108배... '운동도 수행'... 3백여명 필승 강행군

불기 2540 1996 丙子年 새해, 새날 - 땀은 꽃이다. 부처님 땀 도기에 하소서

**서부은평사원연합회**  
회장 서성운 (삼천사)  
부회장 한자용 (수국사)  
부회장 김혜진 (시연사)  
부회장 이법성 (관음사)  
사무총장 서해진 (신흥사)  
서울시 은평구 진관외동 산 127-1 은평사서함 77호  
☎ 359-7766, 353-3004

**백양산 삼광사**  
주지 변춘광  
총무 박자정  
재무 박수산  
노전 변진달  
노전 오문곡  
신도회장 김찬권  
사부대중 일동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초읍동 산 131  
☎ (051) 808-7111-5 / 팩스 : (051) 803-1332

**북성산 전불암**  
회주 이기연 (起然)  
주지 석인경 (印鏡)  
관음회장 박영순 (法日心)  
(매일 음력 초닷새는 큰스님 초청 법회일)  
충남 천안시 목천면 지산리 113번지  
☎ (0417) 557-1388, 64-0506, 64-3223 / 팩스:(0417) 64-0506

**법륜사**  
주지 이일지  
신도 일동  
서울시 동작구 상도2동 363-142 장승B/D  
☎ 814-9946

**삼각산 도선사**  
대한불교 조계종 호국 참회 기도 도량  
주지 차동광  
대중 일동  
서울시 도봉구 우이동 264번지  
☎ 993-3161-3 / (주지실) 993-5002 / 팩스 : 993-3164

**연화꽃꽃이연합회**  
회장 심보명  
회원 일동  
서울시 성북구 보문동 3가 51번지  
☎ 925-0435

**伽山佛敎文化硏究院**  
佛敎原典專門學林 三學院  
理事長 李智冠  
서울시 종로구 동숭동 192-10 우당기념관 2층  
☎ 765-9602-3 / 팩스 : 765-5673

**덕불산 불광사**  
주지 자현  
신도 일동  
인천시 서구 석남동 덕불산  
☎ (032) 583-5238